

교회소식

◆ 광고

1.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 모입니다.
2. 오늘 2부 예배 후 각 기관 월례회가 있습니다.
3.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입니다. (연습2시, 소망관)
4. 오늘 오후 예배 후 연합여전도회 임원과 각 여전도회 회장들은 사랑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5. 1월 16일(금) 오후 7시 30분에 남·녀연합전도회 주최로 전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사랑관).
6. 중·고등부학생회 수련회가 1월 13일(화)~16일(금) 까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습니다.
7. 캄보디아 단기의료선교를 위한 일일차집이 오늘 식당에서 있습니다.
8. 식사대접하실 성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인동정

- 생일 축하합니다 : 전민규, 최미애, 우승준, 소재익, 김남주, 정기훈, 전용술, 윤성욱, 정인선
- 입원 : 김재욱 집사, 서울 목동 힘찬병원 702호

※ 교회 기도제목

1. 영혼구원하고 제자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2. 신일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소서.
3.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게 하소서.
4. 캄보디아 단기의료선교를 무사히 다녀오게 하시고 선교사명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소서.

◆ 모임/청지기 안내

다음주일 새벽찬양	금주 수요찬양	오늘 식사봉사	목장성경공부	전도특공대	중보기도학교	새가족성경공부
제5여전도회	여 15, 16목장	제6여전도회	각 목장별로	수요일 오전10:00	목요일 오전 10:30	주일2부예배후(각교실)

◆ 1월 행사

- 1일 : 당회원 부부 신년기도회 • 4일 : 신년주일, 신일비전헌신예배, 공동의회(예, 결산 심의 결정)
- 9일 : 목장연합예배(오후 8시, 본당) • 11일 : 각 기관 월례회
- 18일 : 2015년 직분자 헌신예배(제직세미나) • 19~26일 : 캄보디아 단기 의료선교 • 25일 : 정기당회

◆ 1월 안내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곽복님, 정영주

◆ 1월 헌금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박순국, 오승엽, 소재익, 이진석, 주정주, 하문숙

새가족

번호	성명	목장	인도자	주소	전화	소속기관

주일낮예배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 11시 설교 설교 안 주 모 목사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다같이
새15장(구55장)
새265장(구199장)
나의 등 뒤에서

기 도 1부/박권용 장로
2부/김제곤 장로

성경말씀 인도자

스바냐 3:14~20(구 P1309)

찬 양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기죽지 말고 한 해를 살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 새406장(구464장) ... 다같이

헌 금 다같이

감사와 축복 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 다같이

♣ 축 도 담임목사

광 고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우성한 장로
2부 / 박근용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최 영 준 목사
설교 최 영 준 목사

예배선언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조성철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베드로전서 4:7~11(신 P382)

찬 양 호산나 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신앙의 자세

찬 양 ... 새216장(구356장) ... 다같이

광 고 인도자

축 도 인도자

✚ 다음주 기도 / 강현선 집사

수요기도회

오후 7:00 인도 최 영 준 목사
설교 최 영 준 목사

목 도 다같이

찬 송 ... 새258장(구190장) ... 다같이

기 도 이정자 권사

성경말씀 인도자

마태복음 5:8(신 P5)

말씀선포 설교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복

목장찬양 여 15, 16 목장

축 도 인도자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여 17, 18 목장

✚ 다음주 기도 / 최윤자 권사

Since. 1978

No 1. 2015. 1. 11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1.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2.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3.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4.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 교회를 섬기는 분 ◆

담임목사 안주모
부목사 최영준
강도사 정기훈
전도사 김금분
장로 김제곤 박권용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용국
박근용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숙 우호선 김종남 강일창
찬양지휘 이옥영 송명남 김신혜 윤현덕
주악 김빛나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조수정 조성일
윤현덕 김성욱 남정아 안소연 윤혜진 정은지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초 대 합니다

1. 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예 배 시 간

예 배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3시	본 당
	수 요 기 도 회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새벽 5시 새벽 6시	사 랑 관
제 자 교 육	심 야 기 도 회	수요기도회 후	본 당
	수 요 전 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중 보 기 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목 장 성 경 공 부	목장별로	각 교 실
주 일 학 교	새 가족 성 경 공 부	2부예배 후	각 교 실
	유 치 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초 등 부 오후 예 배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청 년 말 투 스	중 고 등 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청 년 말 투 스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1. 협력선교사 :** 인도/유지원,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이주민/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재, 프랑스/박신호,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호, 러시아/배성운, 국내선교부/남후수, 미얀마/김인, 태국/정규호, 차양마이/인터넛방송, 필리핀 추수신학교/오일환, 인도구르라트/전미숙
- 2. 미자립교회 :**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벨엔교회/창원 군인교회
- 3. 학원 선교 :** 대전충청지역 S.F.C. 간사/ 이성은, 김지호
- 4. 기관 선교 :** 극동방송국/대전, 웅달생드롭인센터/서울,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5. 문서 선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데오닷컴사

향기로운예물

✦ 십일조헌금

김영필(심남회), 김종남, 김진은(김남주), 남희중(김영자), 노영민, 박새롬, 박세연, 박영숙A, 박유연, 박은정, 박재리, 배사범(장선미), 백춘현(임양순), 소용섭(김다영), 소재역(김미화), 손승희, 신정혜, 오승엽(김영희), 우수연, 윤석은(박경숙), 윤선숙(임순자), 윤호식(주정주), 이선환, 이옥영(김영자), 이진수, 이혜수, 전양순, 정옥근(이경미), 정재만, 최계분, 무명

✦ 감사헌금

김철원(이지영), 김금분(김영란(정영주), 김서연(김영민(함현숙), 김영순(김재근(한영실), 김종남, 김진은(김남주), 남희중(김영자), 레인보우오리나라, 박남수, 박석문(정인선), 박순국(조수정), 박윤서, 박은정, 박혜진(정), 박춘현(임양순), 성형관(윤승희), 소용섭(김다영), 소재역(김미화), 신정혜, 신희숙, 안재경(경은숙), 안주모(조양순), 안진석, 안진형, 오인목, 오승엽(김영희), 우성한(정혜민), 원용국(김복국), 유태환, 윤선숙(임순자), 윤성욱(김신혜), 윤호식(주정주), 이영일(홍은미), 이진수, 정기훈(최연옥), 정영철, 정여원, 정옥근(이경미), 최계분, 최영준(한은정), 황두수(박경자), 무명 3

✦ 선교헌금

김종남, 남희중(김영자), 박남수, 박은정, 박춘현(임양순), 소용섭(김다영), 소재역(김미화), 우성한(정혜민), 윤호식(주정주), 이옥영(김영자), 정옥근(이경미)

✦ 신년감사헌금

김민규 외 33명

✦ 성탄감사헌금

김철원(이지영), 이인호(장지혜)

✦ 목적헌금

김종남

✦ 장학헌금

김종남, 정옥근(이경미)

✦ 일천번제헌금

남동균(윤현덕), 남용민, 안스디(자민), 안영원(영인(혜란)), 안재경, 이태근(임영자), 이영일(홍은미), 이재환(김희), 정은숙(소연(진형(장사)), 정옥근(이경미)

✦ 비전헌금

김일창(교숙자), 강현선(임희자), 김금분, 김영란(정영주), 김영민(함현숙), 김영필(심남회), 김재근(한영실), 김종남, 김진순(유미라), 김춘복, 남동균(윤현덕), 남희중(김영자), 박관용(곽복님), 박관용(최윤자), 박남수, 박상임, 박석문(정인선), 박순국(조수정), 박영숙A, 박은정, 백춘현(임양순), 소용섭(김다영), 소재역(김미화), 안재경(정은숙), 오승엽(김영희), 우성한(정혜민), 우호선(임순자), 원용국(김복국), 윤성욱(김신혜), 윤호식(주정주), 이동근(박영숙), 이성문(박선옥), 이수영(권월성), 이승호(성월음), 이영일(홍은미), 이옥영(김영자), 이인호(장지혜), 이진석(윤혜진), 정기훈(최연옥), 정일원(정채순), 정옥근(이경미), 정인택(이정숙), 정태수(김정희), 조성철(이해련), 최영준(한은정)

목장현황

2015.1.1.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 초원	1	김종남			교 회	043 초원	5	김채욱				교 회	
	2	강일창			교 회		6	고숙자				교 회	
남2 초원	3	김재근			교 회	044 초원	7	곽복님				교 회	
	4	김명란			교 회		8	성영옥				교 회	
남3 초원	5	남동균			교 회	045 초원	9	구남량				교 회	
	6	안재경			교 회		10	정혜민				교 회	
남4 초원	7	오승엽			교 회	046 초원	11	함현숙				교 회	
	8	소재역			교 회		12	김복금				교 회	
남5 초원	9	이진석			교 회	047 초원	13	정옥자				교 회	
	10	이인호			교 회		14	이경미				교 회	
여2 초원(실버)	1	김명자			교 회	048 초원	15	신윤경				교 회	
	2	김명숙			교 회		16	김춘복				교 회	
여2 초원(실버)	3	권월성			교 회	049 초원	17	김혜정				교 회	
	4	정채순			교 회		18	엄금지				교 회	

금주의 말씀

기독교 말고 한해를 살자

스바냐 3:14~20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암담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스바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에 당시 시대적 상황은 사람들의 기를 죽이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기운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성경 리본 바이블에서는 "기죽지 마라", "힘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제목이 '기죽지 말고 한해를 살자' 입니다.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위수를 쫓아내었으며...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났세와 아몬의 끔찍한 죄를 어린 왕 요시아에게 형벌로 내리지 않았다는 약속입니다. 본문은 형벌 탕감선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왜 위축되고 움츠러 들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 내가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갖지 못했으니, 양심을 위반했다는 이 죄의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게 고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질병이 찾아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게 형벌로 내린 무서운 이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우리는 삶의 의욕과 용기를 상실합니다. 이 환난이 행여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 아닌가? 하고 움츠러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어떤 소리에도 자유롭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위축되어 풀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기운을 내십시오. 기죽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어떼와 같은 원수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 우리의 방패,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를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놓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힘이 있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능히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보다 더 진한 사랑을 가진 진짜 아버지입니다. 육의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손 그루메에 팔기만 하십시오. 주님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악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속안송 해치시므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나 혼자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잭 테일러(Jack Taylor)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부흥회를 하실 때마다 그 표어는 언제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만을 가르치십니다. 대단한 부흥사도 대단한 설교가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메시지만 한 주일동안 그리고 나면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 집니다. 작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무거운 짐을 가슴에 끌어안고 몸부림칠 때, 외로이 고독에 지쳐 쓰러지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뺏겨지고 싶은 깊은 유혹을 느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3.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죽지 말고 살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를 볼 때, 가슴 부풀어 하고, 따뜻한 연민과 애정을 느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즐거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이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여기 우리 대신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을 넣어도 확실한 진리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이 땅의 권세자나 부자나 유명인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잠잠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치거나 강한 성령이 직접적으로 부딪혔다면 우리는 숨도 못 쉬고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게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합니다. 나뉘어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즐거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가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에 겨워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의 빛나는 눈동자와 윤기 있고 광채나는 얼굴을 보십시오. 그의 밝은 표정을 보십시오. 인간문제의 해답은 사랑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사랑이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왜 기가 죽어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사랑은 초막을 궁궐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고 이 사랑은 지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킵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주위사람들에게 생기 넘치는 얼굴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이다." 사랑받고 사는 그 얼굴을 보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천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드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양 속에 임하시므로 능력의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온아, 기죽지 말고 기운을 내라! 신일의 성도들아, 기운을 내라! 한국교회여, 기운을 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